

## 중고차 시장의 데이터, 정보의 공유 마당을 꿈꾸며...

- 코로나 19 대재앙에 따른 경제적 피해와 손실 보상을 위해 2020년 하반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돈이 풀렸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의 홍역을 치루고 있고 물가를 낮추기 위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자 이번에는 경기 침체라는 또 다른 재앙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 중고차시장도 긴 침체 터널의 초입에 도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이맘 때 연말 즈음에는 계절적 비수기로 중고차 거래가 위축되기는 하지만 올 해는 그 위축의 정도가 특히 심한 것 같습니다. 상품 중고차 매입을 지원하는 재고금융이 틀어 막히자 중고차를 사는 일도, 파는 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세 매매업체는 말 할 것도 없고 중견, 대기업 계열 중고차 회사들도 상품 중고차 매입을 축소하거나 중단한 채, 재고 소진에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 어려운 시기가 눈 앞에 닥쳐온 이 시점에 전국자동차경매장협회가 새로운 소명의 각오로 새 출범을 했습니다. 소속 경매 회원이 6개 기업회원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몸집이지만 새출발을 하면서 내 세우는 포부와 다짐은 결코 작거나 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경매장은 본래 중고차 유통시장의 하부 구조를 이루는 기본 토대이자 인프라 스트럭처입니다. 난장으로 빠지기 쉬운 중고차 유통을 정규시장 형태로 바꾸어 내는 역할을 하는 특별 중개 시장입니다. 불확실한 차량 정보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공개의 장이고, 모호한 상품가치가 정확하게 평가되는 심판의 장이고, 불투명하게 느껴지는 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드러나는 노출의 장입니다. 중고차시장 내에서 경매장을 통해 거래되는 자동차의 비율이 늘어날수록 그 시장의 투명해지고 선진화되게 됩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경매가 활성화되면 동시에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전, 후방 시장 역시 크게 확대, 활성화되게 됩니다.
- 경매장이 중고차시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핵심 역할은 물론 상품 중고차의 원활한 공급입니다. 경쟁 매매의 형태로 상품성별로 최적의 사업자(딜러)에게 전달이 됩니다. 20년 이상 운행된 노후차량도, 바로 엇그제 등록된 차량도 출품과 낙찰의 과정을 거쳐 그 차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자들에게 공급이 됩니다.
- 수익을 바라고 출품을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손해를 감수하면서 출품을 하여 차량을 처분하기도 합니다. 돈이 될 것으로 예상하여 낙찰을 받았지만 오래 동안 팔지 못해 결국 다시 경매 출품하여 [손절매]하는 쓰라린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경매장은 이런 저런 수 많은 사연이 새겨진 중고차가 몇 십초 찰나의 순간에 낯선 주인의 품에 안겨지는 무정한 매매(賣買)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 또 하나 경매장의 중요 기능은 데이터와 정보의 온전한 생산과 유지 그리고 제공입니다.

경매장이기 때문에 생산할 수 있고 경매장이기 때문에 신뢰를 줄 수 있고 경매장이기 때문에 제공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데이터와 유통 정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량 물량을 출품 유지할 수 있고, 오류를 최소화하며 차량을 평가할 수 있는 곳이 경매장이기 때문입니다.

- 일본의 경우 경매장의 평가 데이터를 내수 매매업체는 물론 해외 수출업체들도 거의 그대로 상품성 평가와 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도 그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수입 가격을 산정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매장 마다 평가 기준이 다소 상이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다행히도 최근 들어 주요 경매장들이 평가 기준의 통일화에 공감대를 형성,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합니다. 기대해 볼 만한 일입니다.
- 낙찰가격 데이터 역시 중고차 가격 변화 추세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소매 현장에서 수의 계약은 거래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의 한계로 인해 왜곡이나 괴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경매장에서는 다양한 사업 주체, 전문가 집단이 출품차량에 대해 동시에 응찰,매입 경쟁을 하기 때문에 가장 시장동향에 부합한 수준으로 낙찰 가격이 수렴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온,오프 동시응찰(Simulcasting) 시스템이 일반화되어 경매 회원간 담합의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 일반적으로 경매장에서의 낙찰가격은 소매가격이나 수출가격의 선행지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 낙찰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이면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매가격이 따라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가격 변동의 폭이 크게 나타나는 비수기 직전 혹은 성수기 직전에 그러한 추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낙찰대수가 적은 차종의 경우 모집단 규모의 한계로 인해 경매가와 소매가의 변화 추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어쨌든 개별 경매장들은 위와 같은 평가데이터와 가격정보 등을 온전하게 생성, 관리할 수 있는 환경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 그런 환경과 역량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힘차게 재 출범한 경매장협회가 앞으로는 이와 같은 데이터와 가격정보 등을 취합, 분석하여 언론이나 소비자 단체 등에게 수시 제공한다면 사회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 아무쪼록 소비자들의 뇌리 속에 뿌리 깊게 각인되어 있는 중고차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앞으로 경매장 협회에서 제공하게 될 정확한 경매 데이터와 신속한 시장 정보를 통해 획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협회 산하 중고차 유통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한국중고차유통연구소장 신 현도-